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전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인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3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근

1998년도 마지막 성찬식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되는 은총이 임하시길 오늘 1-5부예배시에 거행 · 모든 세례교인은 준비하여 동참해야



지난 주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을 보았다. 별다른 특별행사는 없었으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결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우리를 우리 본래의 자리로 인도해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으로 인해 잃어버린 유산도 있다. 바로 성찬예식이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찬예식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로마카톨릭의 의식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사실 정교교의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종교개혁가 칼빈조차도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 몹시 안타까워했다. 설교가 귀에 들리지는 말았지만 성찬예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말쑤이다. 따라서 설교와 성찬은 아름다

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으로 깊이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예배의 두 기둥이다. 따라서 그는 가능한 많은 성찬예식을 거행할 수 있기를 열망했다. 이 아쉬움은 비단 한 종교개혁자의 아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과 살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25)하신 것이 이 아쉬움의 근본이유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고전 11:26)을 명한 바 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홀수 달 첫 주일을 성찬식의 날로 정하고서 연 6회에 걸쳐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는 연 2회 혹은 4회 정도에 걸쳐 성찬예식을 거행해오는 기존의 흐름을 맡았을 안에서 다시 해석하여 극복하고자 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총현의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와 정신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또한 여지는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층 더 갈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랑의 연합함으로 인해 성찬식은 자주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 성찬식의 횟수가 너무 적으면 형식화되어 그치게 되고 너무 많으면 형식주의에 치우치게 된다. 따라서 총현의 성도들은 성찬식의 횟수가 늘어난 취지를 심본 이해하면서 요식과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찬예식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와 경건한

심으로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거리껴지는 성도도 있다면 비록 세례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찬받는 것을 절제하고 기도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성찬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성찬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로 엮어지는 진정한 하나님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할 것이다. 성찬식은 오늘 1-5부예배시에 거행된다.

11월부터 예배 집회 시간 조정 수요2부예배, 금요일집회 오후 7시

예배위원회는 동절기를 맞아 11월부터 수요2부예배와 금요일집회 시간을 종전 7시 30분에서 7시로 30분 앞당겼다.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에 맞추기 어려운 성도들을 고려하여 7시 30분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일단의 관례에 맞추어 시간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성도들은 착오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4차 학습세례식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예

성도들은 해당자들을 적극 권면 격려해야

지난 주일부로 19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총 1,654명이었다. 이들 중 이미 타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새가족부 등에서 훈련을 받고서 학습, 세례를 받거나 개종한 성도들은 총 871명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본 교회에서 자라난 중·고등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금번 제4차 학습세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에 등록하고 공식적인 신앙간증을 통해 교회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순신하게 될 성도들이 있다. 해당자들은 아래에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학습,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적극 권면 격려하고 위해서인 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베풀 수 있어야 하겠다.

아멘찬양대 추수감사절 찬양 준비에 최선 찬양곡은 떼데움(Te Deum)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찬양예배시에 연주할 아멘찬양대의 감사절 찬양 준비가 한창이다. 이주철 집사의 지휘와 최현실 집사의 반주, 그리고 아멘 오케스트라와 180여명의 아멘찬양대원들의 맑고 열정적으로 준비되어 연주될 찬양은 '떼데움'(Te Deum : 감사의 찬양)이다.

작곡가인 안톤 브루크너(Anton Bruckner)의 작품으로 총 5부로 나뉘어진 그의 최후의 교회의 악곡작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영원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백성을 구하소서, 그리고 주여 주님을 인식오니 등의 순서로 연주될 이 곡의 중심 내용은 우리의 연합함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에 대한 찬양으로 엮여져 있다. 때를 따라 이 찬양을 준비하는 아멘찬양대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지원하면서 함께 주님을 향한 진심된 감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다.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11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집인식 목사)	교육관 314호	세례? (김병태 목사)	교육관 307호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성경개요 (정현진 목사)	교육관 314호	교회론 (전형준 목사)	교육관 307호	교육관 307호	
	3교시 15:00-15:50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구원론 (이승수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 (김희주 목사)	교육관 310호
11월 8일 (주일)	2교시 16:00-16:50	문답	교육관 307호	문답	교육관 307호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지적 찬양대, 분당)					



김 창 인 목사

유다의 죄 (2)

(이사야 30:1-17)

“죄는 회개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죄는 회개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죄에 대한 책망을 한두 번 듣고 나서 다시는 없다고 안심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품안에 있으면 죽어도 천국이고 주님의 품 밖으로 나가면 살아도 지옥입니다.”

2. 기록할 유다의 죄와 이에 대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죄를 여러 가지로 지적하였으나 저들은 이 죄를 끝 짓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유다의 죄들을 책에 기록하여 후손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 기록할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대저 이는 패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전하지 말라 선전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기를 유다의 죄를 보는 정로를 비리며 침정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신도다”(9:11절)

① 패한 죄를 범합니다

범한 죄를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기려다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범한 죄는 옳다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선을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들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 죄가 폭로되었으니까 저 놈을 처치해 버려야겠다”

②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죄를 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미 범한 죄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잔이 되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한 번 두 번 하면 술잔이 되어 제3, 제4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속이는 것이 즐거워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낍니다. “나도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장래는 병사할 뿐입니다”

③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자식이 타락하면 간절히 부탁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도 싫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면 기분 나빠하면서 “누가 아버지는 너무 간섭이 심해” 하는 데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었으면 지 불쌍히 하는 말입니다. “간섭”이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시를 부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신 말씀은 권면이

요, 교훈이지 결코 간섭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간섭과 교훈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옛 어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빛 밑에서 자란 곡식을 먹으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면 태양빛도 보지 말고 공기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는 것은 제멋대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④ 선전자로 하여금 해야 할 말을 못하게 한 죄입니다

유다 백성이 선전자들에게 정직한 것은 그만 말하고 거짓 선전일지라도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은 자기들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탁한 말을 청부받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자입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이르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⑤ 선지자들에게 죄를 범하라고 한 죄입니다

유다 백성은 선지자들에게 죄를 범하라고 유혹하고 설득하고 공갈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세 가지 말을 하는데, 먼저 정권을 버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입니다. 사람은 개가 아니므로 음란하면 안되고, 사람은 돼지가 아니므로 욕심을 부리면 안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정권에서 벗어날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침정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침정’이란 목적지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인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에게 이 길을 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다음에 칭찬을 들어야 하고 후세에 오는 사람들에게 배로 산 본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자신의 마음에는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길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자신들에게서 멀리 떠나시게 하라고 합니다.

(2)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① 자기가 쌓은 담에 걸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꽃 나와 경각 간에 표현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불의한 세력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화를 면하고, 미신을 숭상하여 복을 받았다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높은 담을 쌓았는데 줄을 띄워서 독마로 잘 쌓았다면 그 담이 바람도 막아 주고 원수가 쏘는 활촉도 막아 주는 피난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쌓은 담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너져 원수의 활촉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쌓았던 그 담에 걸려 갈빗대가 부러지겠습니까. 이와같이 불의한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미신을 숭상한 것이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②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파함같이 아람이 없이 파쇄하시리라 그 조과 중에서, 아람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14절)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을 때는 토기장이가 동공이를 들고 어지럽게 깨뜨려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 래서 아람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조과도 고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말은 비록한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들의 불의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심판의 손으로 산산히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3.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어떠합니까

(1)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망하게 된 것을 탄식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언언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의하여 힘을 얻을 것이니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15절)

베리리야 앞마당의 풍만에 거만히 앉아 있으면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아무 일 없고 편합니다. 그런데 제 혼자 잘랐다가 덩비 다른 곳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만에 조종되어 있었다면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제 혼자 잘랐다고 돌아다니다가 한심스럽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품 안에 조종되어 살았으면 손발이 없었는데 왜 떠돌면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였느냐

고 탄식하십시오. 조종히 하나님만 믿었다면 죄악과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돌아 다니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 회개하지 않고 도망치려다가 망하게 된 것을 탄식합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도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도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라”(16절)

“너희가 말하기를 지금 갖추르가 오고 바벨론이 쳐들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미리 도망가자’ 그러면 말을 타고 빨리 피난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용서를 받겠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말을 타고 빨리 도망을 가려고 하니가 원수는 말보다 더 빠른 사자를 타고 너희를 따라올 것이다. 너희는 원수와 더불어 싸울 준비를 하고 조종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도망가자고 하였으니 원수 한 사람이 나타나 ‘오악’ 고함을 지르면 너희 가운데서 천 명이 도망가고 원수 다섯 사람만 와서 고함을 지르면 너희 민족 전부가 다 도망을 가다가 서로 밟혀 죽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는 회개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죄를 지적하여도 듣지 않으니까 서판에 기록하여 보이라고 하시고 그것으로도 안되었으니까 다음에는 책에 기록하여 후손 대대에 보라고 하시니 그 죄악을 한두 번 듣고 나서 다시는 없다고 안심하여서는 안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는 회개하여야 해결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피난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품안에 있으면 죽어도 천국이고 주님의 품 밖으로 나가면 살아도 지옥입니다. **▲**

르우벤

(창세기 37:21-22)



김 성 록 목사

“르우벤이 들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팔아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사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동산에서 살다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그 후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홍수를 쏟으셔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세일이 잠시 후 또 다시 고만해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거꾸러 보고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어 인간을 온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가망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그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한 자신의 구원의 설리를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들을 택하신 후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2:3).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아니라 이삭에게, 예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반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비라 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도 바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오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서 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약속 안에 머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헨가,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형 유다가 받은 축복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요셉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배송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야곱이 진전으로 사랑했던 어린 라헬의 첫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결혼 후 얼마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출생은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여호와와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 다. 요셉은 독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영광과 능력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들은 그를 시기한 나머지 동생이 아니라 적으로 여겨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이 의도했던 것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녕을 살피기 위해 갔습니다. 형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을 파괴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무

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결국 르우벤이 의도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신원을 회복하여 장자의 축복을 확고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자로서 동생들의 인도자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정치적 승수를 발휘해 가면서까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며 르우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나 다른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르우벤의 길 예수님의 길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잘 압니다. 르우벤처럼 우리는 요셉을 구하기 위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이 팔릴 때에는 그 아래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미 나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를 포기하셨으나

우리는 르우벤처럼 문제 앞에서 도망가면서도 영예는 얻고자 합니다

를 물려주게 하는 꿈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죽는다면 그의 꿈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가족간의 다툼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계획과 형들에게 다가오는 요셉 사이에는 긴박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장자의 축복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침 침하고 부당한 부당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창 35:22).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능서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눈치가 있던 르우벤은 현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신원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구하기 위해 죽이는 대신 팔아 구덩이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동생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 아버지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창 37:21-22).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한 르우벤의 말에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자로서 도이는 하나님이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라”(창 9:6)라는 오래 전 말씀이 반영되어 있습니

다. 못 없었거나 너무 힘들어서 요셉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처럼 두 제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살아야 될 위해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길만을, 한 제단을 섬기는 길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한 제단만 쌓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다고 말하는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를 포기하셨으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면서도 영예는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의 의미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도리어 큰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창 45:9). 르우벤의 설리를 통해서 요셉은 잠시 고통을 받기는 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

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설리 안에서 값어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삶을 어떻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면 어두움은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짊어 달라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딪친 일을 신실하게 완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묘하신 뜻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때가 온 것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엡 1:9).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이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복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나라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원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시키는 태에 익숙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시간비싸고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찌면 이것은 사실입니까? 우리는 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모습만 나타내 무섭습니다.

충현교회는 이제 막 45주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정도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5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 섬깁시다. ■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에 참여하는 산 제사로

신령한 예배 위해 땀흘려 준비하는 2천여 성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배의 합주



신령한 예배

5대 목표 중 첫번째인 '신령한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일곱 번의 새벽 기도회와 한 번의 금요집회, 두 번의 수요예배와 여섯 번의 주일예배가 드려진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 부서와 기관 등에서 드려지는 크고 작은 예배들, 길고 짧은 수 십 번의 예배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고귀한 성도들의 모임은 그 자체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교회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발견한다. 그리고 은총으로 발견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생활로 돌아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맘과 눈물로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와 찬양대, 기도로 준비하는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음영을 조종하는 손길들, 통역하는 입술들, 예배당을 청소하는 성도들 등 매주일 2천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오케스트라로 예배를 연주하고 있다.

예배 전부터 시작되는 예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따라서 설교자는 수 주 전부터, 심지어 수개월 전부터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 그리고 설

교를 하기 하루 이틀 전부터는 눈물과 맘으로 간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포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기 30분 전부터 설교자와 사회자, 그리고 기도자는 예배준비실에 모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5분 내의로 끝나는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다. 하지만 그 5분여의 시간을 위해 흘리는 땀과 정성은 얼마나 많고 깊은가. 1천 5백여명에 달하는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은 한 번의 찬양을 위해 먼 거리를 자동차로 오가면서 수시간 동안 목이 아프도록 찬양을 연습한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말할 것도 없다. 찬양을 끊임없이 머리 에 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찬양을 위해 간곡히 기도한다. 찬양곡을 편곡하는 이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이들이 한 데 이루어져 예배 중 찬양이 울려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의식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 섬기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마이크와 조명,



카메라 등이다. 이 숨겨진 일들은 음영실의 직원들과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위해 남모르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청소부(?)들과 헌금봉투를 정돈하는 손길들도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각 구역에서 돌아가면서 본당의 의자와 강단, 오르간과 피아노 등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성도들과 매주 금요일마다 헌금봉투를 정리하는 소망부 어른들의 손길로 인해 다른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깨끗하게 준비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예배를 위해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은 그야말로 예배 전부터 시작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준비되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예배가 시작되기 15분 전. 예배 전 찬양 순서를 맡은 이가 단위에 오른다. 그 아홉달에 준비된 찬양으로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주님께 속삭인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와 더불어서도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 안내위원들과 헌금위원들은 준비실에서 기도를 마치고서 가운을 입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기 시작한다. 그리고 카메라만이 예배 장면을 영상에 담고, 본당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기 위해 스피커를 조절한다. 마이크 소리가 맞추어지고 조명의 밝기가 적절하게 조정된다. 시간이 정각에 맞추어진다. 그러면 땀과 정성으로 준비된 찬양대의 흰한 입매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숭막히듯 조절된 긴장을 유지하며 큰 기대감과 설렘으로 고개를 숙이는 성도들. 이미 기도로 준비하고 마이크 앞에서는 사회자와 기도자, 헌금위원들의 섬김으로 조용하나 경건하게 드려지는 헌금순서, 그리고 찬양대의 합창과 은

혜로운 찬양과 설교자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이어진다.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음영실 바로 옆에 있는 방들에서는 동시통역이 이루어진다. 수화와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도 통역이 된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대만, 아시아 몇 나라의 언어로도 통역이 되고 있다.



예배 후에도 계속되는 예배

예배가 끝나면 교역자들은 본당 로비에 서서 일일이 성도들과 악수례를 하며 인사를 나눈다. 찬양대원들은 연습실로 내려가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 또 다시 땀흘리는 연습에 들어간다. 성도들이 바친 헌금은 본당 2층의 헌금집게실로 옮겨져서 봉투한 봉사의 손길들을 통해 집계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한 톨이라도 잘못 셈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그리고 안내위원들은 예배 중 집계한 출석성도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정돈한다. 이 모든 섬김들은 예배 후에도 계속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한편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예배위원회의 섬김 역시 이 예배 전후로 드려지는 예배임에 틀림없다. 예배위원회는 위원장과 지도 등으로 구성된 지도부와 위예배부와 성례부, 안내부와 헌금부 등으로 나뉘어 각각의 부서마다 헌신적인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통해 건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봉사자들은 거의 4백명 가까이 된다. 특히 이 예배위원회 중 가장로 섬기는 이들은 격월로 새벽기도회 안내까지 맡고 있다. 함으로 아름다운 섬김들이다.

이 모든 손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월되어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기발하고 명민한 아이디어나 인간적 호소력을 떠나서 진실로 깨끗한 심령과 순수한 복음의 선포와 드림고 사람이 넘치는 찬양을 통해 신령한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리라.



제자들에게 쓰는 편지 인생의 역경을 넘어서는 길에서

취업과 진학을 앞둔 사랑하는 고3 제자들에게

임 무 천(영로, 고동부 부장)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새벽녘으로는 제법
날씨가 쌀쌀한 것이 옷
깃을 여미게 하는 요즈

음입니다. 이제는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심결에 뒤 뒤의 야산을 바라보았더니 어느덧 단풍이 붉게 타들어가는 것이 벌써 가을의 한가운데 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전 방에는 벌써 얼음이 얼었다지요? 여러

힘든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힘을 얻는 믿음 자랑스러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길

분들은 계절의 변화에도 방랑없이 매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책과 서류를 들고 피곤한 몸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취업과 수능시험 준비의 마무리에 여념이 없을테지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난 9월, 언젠가 독서실에서 밤 늦게 지친 몸으로 돌아와 밤 12시가 넘는 시간인데도 교회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고동부 선생님의 글로 중간중간

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취업과 수능시험이 얼마 안남았지요? 지난 3월 도대어 고3이 되었다고 긴장된 모습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벌써 중요한 결전의 때가 목전에 다가왔군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없이 주신 은혜로 만만치 않게 사신 자녀면 여러분들은 귀중한 과정을 앞두기까지 지켜 주신 은총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시종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

뢰하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정직한 마음을 갖되 노력 없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땅이 없는 결실을 바라는 어리석은 지체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일테니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않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김 동 하(목사, 대학부 지도)



대학입시를 위해 세
롭게 한 해를 준비한
지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얼
마 남지 않는 시험을 앞에 놓은 여러분
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

믿음의 담을질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려하고 싶습니다.

"이리므로 우리에게 하단바 중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
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
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
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리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
셨느니라"(히 12:1, 2)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

려분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
억하며 남은 시간들을 준비하길 바랍니
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
려분들이 자신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겁고 얽매어
기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하면
교만할 것이고 실패하면 원망할 것입니
다. 그러므로 맡기십시오. 입시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십시오.

둘째로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하 입시가 아닙니다. 당장은 실감나
지 않겠지만 입시는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스러운 보좌 앞에 들어가는 입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향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
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
각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 앞에 있는 줄

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
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다. 여러분들의
현실에 놓인 것들로 부끄러워하지아
열등감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인들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경주에 따라 믿음의 중
인들과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
도께서 믿음의 담을질을 격려하며 응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교역자 기술수련회 다녀와서

‘복음’의 포로로 빛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승 학(목사, 14교구 지도)

3월에 부임하여 교역자 기술수련회
에 참석할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수련회를 맞이했다. 기도원으로 향
하는 길에서 잠시 지난 시간들을 회
상해 보았다. 부임 직후 수송하다 못해
다소 거북스럽기조차 했던 위임목사님
의 신종어(新種語)로 인해 써먹었던 나
날들! "예수님이 진합니다." "복음 안으
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오해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던 시기 아니었나
 싶다. 때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목사님의 눈물 어린 호소에 헛
병아리 목사님에 불과하면서도 벌써부터
현실에 안주하고 하는 성숙한 내 자신
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받고 양
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었나!

사실 지난 7개월의 시간들은 끊임없
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도전의 기간이
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
면서 부족한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이
해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복음'의 포로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 이런 기도를 해도, 설교문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밀거름의 시간들

을 써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를 금방 떠올리게 된 내 자신을 쉽게 말
컨다면, 그렇게 볼 때 지난 날들은 정체
성(identity)을 찾아 방황한 시간들이 아
니었다 생각한다.

이제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의 증인 된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참된
복음의 협력과 동역을 이루어야 할 시
점이 아닌가 싶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교역자의 동역을 위한 밀거름

이 되는 기회로 삼으셨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기에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그러나 첫째날 공동체
훈련을 가지며, 한 생구교자 가운데서
서 한마음과 동역을 향한 열정을 발진
할 수 있었다. 둘째날 오전과 오후에 모
마서와 히브리서를 통독하면서는 동역
의 기초가 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뛰워나히에도 수련회의 결정은 둘

째날 저녁에 있는 위임목사님과의 진지
하고 솔직한 대화 시간이었다. 교육전
도사, 여전도사, 부목사, 당회장 순으로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좋은 동역 관계를 유지하자는 목
사님의 제의에 우리 모두는 그동안 사
역하면서 온연 중에 쌓인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았다.
위임목사님 역시 많은 단점들을 제시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OK OK' 하시며 수
용해 주셨는데, 그것이 내겐 꼭 인상적
이었다. 서로간의 불만과 의심의 담을
하루는 작업은 무려 3시간 가량이나 진
행되었다. 전체가 서로 돌아가면서 약
수를 나누는 일명 '약수레'를 통해 여
러의 동역 의지는 한 개인의 손에서 전
체의 손으로 이어졌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난 이번 교역자 기술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 이 글을 쓰면서 폐회예식에
증거인 필립보서 1장 27-30절 말씀을 생
각해 본다. "우리는 복음의 협력을 위해
주님을 의지하면서 서로의 장점만을 바
라보아 마귀의 분열작전을 물리쳐야 합
니다." (사신) / 수련회를 마친 후 한 자
리에 모여 다정다정한 포즈를 취했다.)

이 달에 만난 성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 있었어요

나를 가장 큰 부자로 만들어준 성경쓰기

신앙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슴 벅차
아동바둥 하는 세상살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마라' 그릇을 묵상하여 ... 그리 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가 형통하라'(수 1:8).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잘 아는 말씀 중 이 말씀처럼 읽을 때마다 성도들은 설레이게 하는 말씀도 없다. 바로 '평탄과 형통' 때문이다. 그래서 공작 말을 형통 읽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만큼 두 가지 벽에 부딪힌다. 한 가지 벽은 말씀을 쉬임없이 꾸준히 읽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데서 생긴다. 또 한 가

지 벽은 평탄과 형통에 대한 진정한 이해의 결핍에서 온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여러층은 가시지를 얹고 찌뿌둥한 문은 여전히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 중에는 성경 전체를 일일이 손으로 적은 이가 있다. 그 이는 말씀을 일일이 옮겨 적으면서 진정한 형통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 분, 윤영숙 집사를 만났다.

반갑습니다. 식당(다모임)을 운영하시면서 성경을 옮겨적으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귀한 성경쓰기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윤영숙: 사실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그러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특히나 아무리 자그마한 식당이지만 혼자서 이 식당을 꾸리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주간성경공부 같은 데에 참석해서 많이 많이 배우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고민하던 중에 마침 저희 1교구 에스더전도회에서 성경쓰기를 권했고, 또 회장님 신면숙 권사님이 격려해 주셔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적어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세워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얻은 유익이 많으셨는데요.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윤영숙: 구약성경을 적으면서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과 요셉의 용서와 사랑, 수벳메인의 봉사 등이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신약성경을 적으면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아낌없는 사랑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서 봉사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행인들에게 전화를 빌려 주고 다룰 때는 물도 제공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다 적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전도한 두 영혼으로 인해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으셨을텐데요?

윤영숙: 주변에 있는 분들 중 좀 비웃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펜으로 일일이 적다보니 손목이 무척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인대가 늘어났거나 손목에 물룩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끝내고 나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도 권하고 싶으실텐데 이 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영숙: 말씀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가다 보면 좀 더 가까이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 기록된 지혜를 좀 더 가까이서 얻고 적어가라는 일이 반복되면서는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살이가 아동바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다 옮겨적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꽂 들어찬 느낌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리 없어도 진짜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제 친구 중에 평정한 부자가 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성경을 적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별아, 기도하고 자야지!

"너 이름이 뭐야?" "... 오라" "뭐? 다시 말해 줄래?" "... 유라" "무슨 유라야?" "김유라, 박유라 ..." 유라는 말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마침내 알고보니 "표 유라"

유라는 단청아동이 아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청각장애인)와 수화로 대화를 하다보니 도래에 비해 언어구사력이 부족하고 부정확한 발음이었기에 예바다부 권사님, 집사님은 혹시 유라가 청각장애가 아닌지 걱정을 하시기도 했었다. 우리들은 청각장애인의 자녀들은 정상 아동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관심 대상에서 제외시켰었고, 청각장애 아동들은 보정기만 끼면 장애를 벗어난 수 있을 거라는 통념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바다부에서 강당에 아 할 사적으로 생각하며 청각장애 아동과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아동들을 위해 제재으로 유치부를 구성해서 성경이기와 한솔배우기, 국어공부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3명의 선생님이 2년에 걸치고 있다.

3월부터 9월까지 연령 차이가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부모인 우리 두 분은 눈에 보정기를 착용한 친구가 어색하지 않아 부모가 청각장애 아동으로 말을 해도 잘 알아듣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해 간다. 우리 아이들을 각각 유이부, 유이부, 유이부에서 예배를 드린 후 예바다부에서 모인다. 청각장애 아동은 전도사님의 빠른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성



어느날 유치원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날, 별이의 잠자기 전 기도하 엄마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경이하기를 다시 듣는다. 내용의 글자와 그림을 읽어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찬송가의 가사도 한 단어 한 단어로 설명하며 율법을 가르친다. 청각장애 아동은 보정기를 착용하고는 말을 잘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놓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방 방을 알려 주기 위해 1년 동안은 선생님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토끼만, 민음만으로 나누어 연령에 맞는 여러 가지 학습을 지도한다. 2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유이가 마음문을 열어 가끔 웃음만 얼굴을 보여 주고, 입마름에 안기어 유이를 먹으며, 건지 못했던 현미는 4살이 되어 부모(청각장애인)가 하지 못하는 말들을 다 하려는 듯 말을 너무 잘하고 기록하게 부모의 대변인이 되어 주기도 한다.

우리 아동 중 청각장애 아동 별이와

전선이는 작년에 처음으로 나온 교회에서 예배에 어색해 했지만 지금은 창조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고, 찬송도 잘한다. 배운 찬양을 집에서 부르며 엄마가 무슨 격정이라도 하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해 주기도 한다.

청각장애 아동 별이의 가정은 조부모, 부모님이 불교와 평소 교회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별이가 교회가는 것을 좋아했기에 가로막진 않았다. 별이 아버지는 별이가 집안에서 하나님께와 찬송하는 것에 대해 약간은 거 부감도 있었었다. 별이 교회 나온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모임의 시작 기도를 하려는데 "선생님 제 기도할게요" 하더니 선생님보다 더 길게 기도를 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후부터는 집에서

조 현 아(예바다부 유치반 교사)

도 기도를 했다. 어느날 유치원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날, 별이의 잠자기 전 기도하 엄마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하나님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놀렸는데 못들었어요. 친구들이 놀렸어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있으면 잘 안들려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기도 소리에 별이 엄마는 애달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별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엄마도 교회에 가고픈 마음이 생겼다는 고백을 나눴게 했다. 이 얘기에 나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후 별이는 잠 자리에 들어 때마침 엄마는 외친다 "별아, 기도하고 자야지!" 참으로 놀라운 말이다. 덕분에 동생 유이도 같이 기도한다. 다른 자를 놀이에서 당신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이를 통해 그의 가정을 구원시킬 것이다.

다른 청각장애 아동 전선이는 덕분에 올 여름부터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작지만 꼭 해야 할 일들을 하게끔 하신 주님께 2년 여 동안 감사 은혜들로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보여 주심이 우리에게 더욱 감사와 열심을 갖게 하신다.

"충성된 자라는 것을 보낸 이에게 다 치 추수하는 날의 열매를 주 권사님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잠 25:13)

지체들 소식 / 탐방

지체들 소식

영아부

전양으로 하나님 우리 아빠들

새 친구들을 아빠들과 함께 초청하여 커다란 잔치를 벌였다. 아가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드림이 좋아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았다. 초청 축하로 몇몇 아빠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잔치를 벌였었고 이어 처음 나오신 아빠들도 찬양과 율동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이날 새로 나온 친구는 7명. 푸짐한 선물과 축하박수로 환영하였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면 자라나길 기도하면서. (송해경 통신원)

유년부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예수님

지난 주일에 있었던 초청 전도잔치의 성과는 대단했어. 그저 연중 행사로만 끝내지 않기 위해 다음주에도 노력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한 달 연속 기도로 참여하였고, 기도원에서 기도회도 가졌어. 더욱 중요한 일은 두 달 전부터는, 학동초등학교 전도팀을 구성해서 조직적인 어린이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신 각 과의 선생님들이 화, 금, 토요일에 분산해서 나와 어린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눠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은 아낌없이 귀한 추억이었어. 또한 초청 전도잔치에 인형극 '돌아온 탕자'를 보는 어린이들은 때로는 웃기도, 때로는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애쓴 결과로 20명의 새 친구들이 나왔고, 특히 이 초청의 내용이 전달되어 잃어버린 장기결석생들도 나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지 알고, 마

침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주 통신원)

중등2부

그들 안에 능력의 예수님이

셋새달된 새학에서 푸듯푸듯한 신록으로, 이제는 울긋불긋 곱게 물든 단풍으로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갖가지 빛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변화된 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서, 좋은 모습을 쉽게 보여 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방에서 재능이 있고 활발하고 건강한 친구들인데 말이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바다를 건넌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거하시므로 좀 느리기는 하지만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리라 믿으면서 저희 중등2부 교사들은 남은 두 달 동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성애 통신원)

소망부

심령의 전양으로 주님께 영광!

10월 25일 과별 찬송가부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과별로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찬송으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노쇠하신 음성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드린 소망부 학생들의 심령의 찬양을 우리 대회에서 기쁘게 전해 주실 믿습니다. 대회는 지정곡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와 자유곡 한국곡을 부르시며 시종일관 교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

주시며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고 경찰 전도의 여중창단의 아름다운 특송은 그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습니다. 1등은 172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를 부른 여2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문하숙 통신원)

사랑부

다음 음악회 개최

지난 주일(11월 8일) 12시에 사랑부 집회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연주팀은 한국페스티벌상블(1986년 창단, 바르코시대 음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로 실내악의 진수를 들려 주는 악단)과 소마트리오(이민진, 손인경, 백일연)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

15교구

중동원주일로

지난 25일 주일, 15교구 모임에서는 새가공 환영회로 98년도에 새로 등록된 신신자 가족들을 초청하여 예배드리고 각 가정을 소개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권 통신원)

충현복지단

서울시 장애인청소년 연극축전 참가

복지관에서는 10월 12일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제6회 장애인 연극 축전에 참가하여 '별주부전'을 공연하였다. 13명의 혼련생들이 각각 용왕, 자라, 토끼, 사슴, 문어 등의 역할을 맡아 열연했는데 모두들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했다. 정신지체인들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한편의 연극을 연출해 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어떤 무대에 올라 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물갈라게 했다. 이번 연극 공연의 경험은 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 공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우리 혼련생들의 장란 모습을 지켜봐 주길 기대해 본다.

한편 IMF 시대를 맞이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직원들이 약간의 후원금을 모아 돕기로 했다. 이는 어려운 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처음 실시한 이번에는 지체2급의 어머니가 정신지체3급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정과 정신지체1급인 어머니가 혼자서 자녀 셋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점점 취위치는 날썬 가운데 전도를 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탐방 / 중원기도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의 쉽터

에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들 중 누구라도 세상을 피해 한적한 곳을 찾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을 향해 가슴을 열어 놓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중원기도원은 경기도 광주군 초원면 대항령리 신 9번지(전화 0347-765-5472) 향기로운 숲속에 자리 잡고 있다. 높은 언덕에 우뚝 선 본당과 남녀 숙소인 다니엘관과 에스테리관, 목사와 소집회실을 갖춘 사무동이 이곳을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놓은 무수한 사연들을 비밀스럽게 안고 의연하게 서 있다.

이곳의 책임자는 운명식 장로님이신데 그분 외에 최상기 총무님을 비롯한 네 분의 사무 및 관리직인과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네 분의 집사님이 이곳의 식구다. 이들은 기도원에 속한 농지에서 약간의 농산물을 재배하면서 이곳을 방문하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고 계신다.

중원기도원은 꼭 충현인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원들에 완전히 봉쇄되어 문을 열어 놓은 것은 물론 외부로 향해서도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며 교과와 교단을 초월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교역자에게는 숙식을 완전히 무료로 제공한다. 어려서부터 기도원을 조건 없이 완전 개방하여 세 배를 초월한 교회의 결단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길 바란다.

특히 요즘 같은 한난의 시대에 부끄러워 기도하고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도원 봉사자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머물다



하나님을 향한 무수한 사연들을 비밀스에 간직한 곳

갈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하고 있다. 특히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근에는 기도실 편작을 깔고 더러워진 곳을 도배를 하며 색이 바래고 낡은 곳을 교체하는가 하면 외부 화장실을 깨끗하게 보수하였다. 마치 주인이 네 집을 방문한 손님을 대접하듯 주인 의식을 가지고 깨끗 이 청정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한다.

기도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시설은 식당이다. 식당은 봉사자가 네 사람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 많은 경우 8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힘의 원동력은 식당 식구들의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 의식이라 생각한다. 이분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데 스스로를 택한 이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사명의식이 대단하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과 격리된 이곳에서 봉사하는 일이 쉽지않은 일을 것이다. 그러나 식당 식구들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일의 구분없이 힘을 합쳐 일을 한다. 주당에서 10여 년간을 하루갈이 봉사해 오신 권경희 집사님은 기도원 공동체를 꼭 지켜야 할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하며 몇 안되는 식구들로 구성된 기도원이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은 하나님께 진히 감사드리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중원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이들의 노력이 큰 것같이 이곳

을 찾는 사람들도 예의를 갖추어야겠다. 기도원에서 제시하는 여러 수칙들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생활에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삼가야겠다. 성전처럼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 되고 숙소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이 관리하며 특별한 화장실을 막히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 기도원을 아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심한 노력이 기도원을 좀더 쾌적한 안식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도원은 어찌면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곳이 가장 세태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다. 산 아래 세간의 사정이 넘쳐 못마는 기도원에서 더 빨리 안다. 그것은 요즘처럼 살아가기 힘들 때 남 모르는 속사정들을 안고 기도원을 찾는 식구들이 부쩍 늘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비록 인도도 있다. 삶이 위해 조종하는 것을 타국에 안 이들이 이곳에서 이름을 식리려 조용히 기도원들을 거치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럽고도 귀하다.

기도원에서 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원에 와서 인간의 낙향함을 주께 고백하고 마음을 쏟아 놓고 하나님께 위로 받기 원한다. 이들의 이름들을 작성스레 이루어진기라도 하듯 이곳을 지키는 수고의 손길은 방문객들을 맞이해 반기고 있다. 누구든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려는 기도원 식구들의 따뜻한 배려가 아름답다. (글/정영희 기자)

교 회 소 식

● 알 림

1. 성찬식 / 오늘 1, II, III, IV, V부에서 있습니다.
- 모 임
1. 정기당회 / 4일(수) 20:10, 당회실
2. 장로 회요새벽기도회 / 3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필요요새벽기도회 및 성경공부 / 2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4.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리움
5.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
6. 남년전도부 각 구역 연합회장, 부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칼빈홀
7.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기도회 후, 갈릴리움
8.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5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9. 경찰전도회 총회 / 8일(다움 주일) 15:00, 칼빈홀
10. 출현 소석 장학생(대학생 이상) 모임 / 6일(금) 금요교회 후, 나사렛
11.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314호
12. 권사회 제1회 월례회 / 4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년전도회

1. 베드로 2 / 14일(토) 18:30, 노아식당
2. 베드로13 / 7일(토) 17:00, 박병근 집사택(부부동반)
3. 루디아 3 / 6일(금) 11:00, 교육관 109호
4. 마리아 3 / 6일(금) 11:30, 교육관 109호

● 길 혼

1. 이병철권(현연호 권사의 아들, 제2교구)과 황숙량(황계호 집사, 박봉자 집사의 딸) / 5일(목) 12:00 갈릴리움
2. 손동현권(손기수 씨, 송복님 씨의 아들)과 남병미양(남용 성도, 김석선 집사의 딸, 제4교구) / 5일(목) 15:00 삼성동 공향터미널
3. 손호찬권(오병근 씨, 최기선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남윤남양(남백현 성도, 조봉호 성도의 딸, 제19교구) / 7일(토) 14:00 교동회관
4. 최세창권(최인경 씨, 강장두 씨의 아들)과 김해정양(김영문 성도, 고규자 권사의 딸, 제12교구) / 7일(토) 15:00 태극당 예식부 2층 경실

● 회 사

1. 강숙원 은퇴권사(이미선, 이승호 성도 모친, 제17교구 셋방구역) / 10월 22일 별세, 10월 24일 장례

● 주 소 및 전화번호 변경

1. 유운성 장로, 신군자 권사 / 대천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53 럭키하나A, 109-406, 전화: 042-864-2307
2. 이효선 집사, 김석선 권사 / 노원구 상계2동 320-3 중앙하이츠 209-1603, 전화: 934-6552
3. 신종호 집사, 안효선 집사 / 전화: 871-3962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1655	장재호	1	청년2부		1666	서지연	6	청년2부	양옥자(6)	1677	장재나	19	대학부	
1656	김영희	1	청년2부		1667	한재아	10	에스터	이진승(7)	1678	김성기	19	청년1부	박영옥(6)
1657	장재원	1	대학부		1668	김경진	11	에스터		1679	이유정	19	청년1부	
1658	김승열	1	청년2부		1669	김매화	13	루디아		1680	박정진	15	청년부	
1659	김기원	1	청년2부		1670	김정옥	15	청년2부		1681	박미숙	1	중등부	
1660	신명희	4	청년2부	윤숙자(4)	1671	권영숙	16	루디아	김명자(16)	1682	이은혜	4	소방관	
1661	여은영	5	청년2부		1672	권혁상	17	바울	이진규(7)	1683	박종성	4	요한	
1662	이연정	5	중등부		1673	김진경	19	고등부	김진경(17)	1684	김병영	4	에스터	
1663	이현지	5	중등부		1674	조진희	19	청년1부	김계화(6)	1685	김준호	4	베드로	
1664	양하옥	6	청년2부		1675	김주연	19	청년1부		1686	김준모	8	베드로	
1665	이재원	6	청년2부	양옥자(6)	1676	이도경	19	대학부		1687	강경진	11	요한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물음

30, 60, 100배의 결실

이 소 헌(권사, 1교구)

모 교의 111주년 개교 기념식에 이어서 동기 동창들의 모임이 있어 참석하고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놀랍다. 어들의 이 땅에 100여년 전부터 천리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구제,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주면서 맘과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 교회의 결실을 일구었다.

나의 모교는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세웠고 초대 교장은 의사인 애니 엘러 여선교사였다. 이 학교에서 동문수학한 동창생들이 63대의 담임을 모시고 축하 오찬을 마련한 자리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누릇게 목사 안수를 받고 10여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동창이 설교를 하고 나는 대 표기도를 하였다. 사실 기도하는 대 소를 맡은 것이 이번 모임에 참석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다. 성령의 거듭

남 이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외에는 어떤 모임도 발길이 향하지 않았었다(난관 다들 참성하도 믿음은 예외였다).

이번 모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증 집회와 같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도전받는 시간들이었다. 가정에서는 듣는 배려로, 사회와 교회에서는 믿음의 일꾼으로 요소요소에서 자기 믿음의 분량과 달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참으로 주님의 손길이 30, 60, 100배로 맺어내시는 결실들이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를 묵상하며 "고운 것도 거칠고 아름다운 것도 험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한 말씀을 암송해 본다.

11월 8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할렐루야 남성중창단

(할렐루야원반대)

(찬양곡목)

- 주님 · 너 용기 잃지 마라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여호와 아래
- 복을 세우라

◆ 3부예배

소프라노 박현주

(베냐민원반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내 죄를 회개하고 · 이 세상 끝날까지
- 이름의 소망 무연가
- 지 요단강 건너편에

◆ 4부예배

할렐루야 남성중창단

(할렐루야원반대)

(찬양곡목)

- 주님 · 너 용기 잃지 마라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여호와 아래
- 복을 세우라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김필수 목사

충헌 중보의향

① 김창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② 교회 5대 목표가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전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젊은이들의 신앙이 확신하고 분명한게 세워지면서 이들을 통해 교회의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소서.

③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겨울단기선교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님께 맡겨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어 열매 맺게 하소서.

④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의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케 하시고, 충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⑤ 새벽기도회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⑥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닌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⑦ 매주 수요일 1부예배 후에 있는 지역장 부 지역장 훈련과 수요일 2부예배 후 진행되는 남 성도구역장훈련을 통해 교구원들이 힘있게 세워져서 각 구역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⑧ 학습 및 세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⑨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와 1년간의 모든 은혜에 진한 감사의 의미를 회복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진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훈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식

김필수 정현준 김재철 이순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희수 김성환 차병준

김병태 김진식 김현진 서광진 이순학

정현성 박노철

■ 협동목사

윤영택 박영호 노봉진

■ 선교사

이준고 안석렬 김영대

■ 교무목사

이은정

■ 감동목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순복 정연희 현정향 정복인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희

유영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효순 한영준 박종화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김진식

■ 교정전도사

박인기

■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